

##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16 주

## 부담과 기도

2008년 4월 14일 ~ 4월 26일

##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557, 480, 290, 559, - (영 770, 657, 389, 775, 790)

성경: 마태복음 6:5-18; 9:35-38; 누가복음 6:12; 18:1; 에베소서 1:15-18; 갈라디아서 6:2-5; 빌립보서 1:3-4; 골로새서 1:3-4; 4:2-4, 12; 디모데전서 2:1, 8

##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 제 16 주 : 부담과 기도

☞ ☞ ☞ ☞ ☞ 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 데살로니가전서 5:17, 19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 📖 마태복음 6:6, 9上, 10下

6. 너는 기도할 때에 ...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9. ...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

10. ...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 하나님의 부담을 지는 것을 배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부담을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의 자녀 중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셨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담은 오직 우리 영이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에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열려진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담을 받을 상태에 있는 것이다. 부담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신실하게 그것을 해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첫번째 부담을 해방했을 때, 두번째 부담을 받게 될 것이며, 두번째 부담을 해방했을 때, 세번째 부담을 받게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영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열어 놓습니다.』 우리가 신실치 못함으로 인하여 종종 아무런 부담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담을 지기를 원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매우 예민하여져야 하며 따

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느낌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만약 어떤 것에 대하여 기도하여야 한다고 느낀다면,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 겉으로는 그런 느낌들이 희미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면서 강하게 얻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영을 소멸한다면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부담을 해방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담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에 대하여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담을 신실하게 해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더 많은 부담들을 계속해서 주실 것이다. 더 많은 부담들을 받지 않으려는 전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부담을 해방하지 않은 것이고, 해방되지 못한 부담들이 우리 입을 막고 있었다. 그 부담을 내려 놓을 때 두번째 부담이 따른다. 어떤 부담은 그 시작이 매우 희미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에 매우 신실하여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행함에 있어 신실하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계속 분배하실 것이다. 오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든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면, 잃어 버렸던 부담들을 회복해야 한다.

부담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있다. 따라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구하여야 하고 우리에게 그분의 부담을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의 역사 안에서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부담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다. 우리가 받는 그 부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기도 한다.

예를들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분명하고 강한 부담을 주실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한다면, 당신이 복음을 전파하면 할 수록 더 많은 부담이 해방될 것이다. 그 부담은 처음에 무거울 수 있지만, 복음을 전파 할 수록 그 부담은 더 가벼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부담을 해방하기를 실패한다면, 그것은 영 안에서 무겁게 내려앉을 것이며, 시간이 가면 갈 수록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결국 당신의 느낌은 무감각해질 것이며 더이상 그 부담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안에 있는 생명은 점차 사라질 것이며,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장벽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 안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당신이 영원히 소멸할 것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마치 생명이 그친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더이상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해서 그 부담이 당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모든 영적인 일은 그와 같은 부담들로부터 발생

한다. 아무런 부담이 없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일은 비효율적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주어진 부담에 따라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당신의 온 존재가 점진적으로 해방될 것이다. 매우 무거운 부담으로 시작하였겠지만, 계속하면서 그 부담은 해방될 것이고, 당신은 들려질 것이다. 당신의 일의 가치는 그 일과 연결되어 짊어진 부담에 좌우된다. 아무런 부담이 없이 당신의 일에는 아무런 영적 가치가 없다. 그러나 부담이 있으면 영적 가치가 있다. 부담에 따라 일 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되고 계발될 것이다. 당신의 짐이 떨어지면서 그 과정 가운데 당신은 계발되나갈 것이다. 아무런 부담이 없이 일한다면,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며 심지어 당신이 일하였기 때문에 비난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모든 영적인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부담을 위하여 그분을 기다려야 하며 그래서 양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방하기를 준비해야 한다.

☞ ☞ ☞ ☞ ☞ **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요한일서 2:27**

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 **베드로전서 1:11上, 12上**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 미리 증거하여 어느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  
12. ...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

📖 **계시록 1:10上**

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 들으니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하나님의 필요를 느낌과 동시에 기도의 사역을 전개함**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부담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안을 살피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자기 반성보다 더 해를 주는 것은 없다.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이 우리의 시각을 안쪽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이점을 마음 속에 새기도록 하자. 이것은 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죄는 그 자체로 이미 인식될 수 있지만, 자기 반성은 그다지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 의심스럽지 않은 병은 더 심각하고 분명한 병보다 항상 더 큰 피해를 준다. 만약 자부심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매우 잘 알았을 것이다. 이러한 결점들은 분명하다. 그러나 잘못하고 있다는 아무런 느낌이 없이 하루에 스무번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다. 만약 다투고 있다면, 분명 무엇인가 잘못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아픔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반성을 할 수 있고 그 악함을 전혀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속안을 들여다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가장 상처를 주기 쉬운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반성에 내어지고 잘못된 영성의 생활을 살고 있다.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그들은 멈춰서 묻는다. 『내가 이것에 대하여 과연 부담을 갖고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그 느낌이 부담일까 아닐까? 이것이 부담일까? 무엇이 부담일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는 부담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이방에서 저방으로 탁자를 옮기자고 요청하였다고 하자. 당신이 그것을 하는동안, 이것이 부담인지 아닌지를 궁금해 하는가? 그것이 가벼우면 부담이 아니고 그것이 무거우면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어떤 것이 당신에게 부담지워지면 그것이 부담이다. 부담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지 당신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 만약 당신이 부담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안다. 당신이 부담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속을 들여다 본다면 잘못된 것이다. 부담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기 반성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고통 받는 가장 큰 손상은 자기 반성에서부터 온다. 그것은 당신을 속일 것이다. 밤낮으로 부담을 찾을 필요가 없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한다고 느꼈다면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말아야 하며, 그 기회는 당신의 의문에 대하여 묻는동안 사라져 버릴 것이다. 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부담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해질 것이다. 두 가지 모든 경우에 대하여 당신은 알게 될 것이며, 그 어느 쪽도 발견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 하나를 찾으려고 속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면, 당신은 부담이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부담이 있다면 알게 된다. 어떤 것이든 당신을 누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부담이다.

속에서 무겁게 느낀다면, 당신은 부담이 있는 것이며, 만약 그에 따라 행한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부담을 기꺼이 받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가르침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런 방법으로 행해진다. 기도의 사역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기도와 역사는 나눌 수 없다. 기도 없이 역사는 없다. 따라서 기도를 통하여 부담을 해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담을 집어내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주님은 어떤 문제를 당신 속에 두실 것이며 그에 대한 부담을 주실 것이다. 만약 기도한다면, 그것은 해방될 것이며 새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부담 아래 짓눌릴 것이다. 오늘,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하여 생각 할 때마다 괴로운 느낌을 받을 것이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욱더 무겁게 될 것이다. 한 두번 한 편으로 밀어 둔 후에 결국은 더이상 그것에 대하여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약 반복해서 당신의 느낌에 반하여 행동한다면, 어떤 순간 더이상 그것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접촉을 잃게 될 것이며 더이상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부담에 반하여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장벽이 형성될 것이다. 모든 역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든 사람을 향하든지 부담을 갖고 행해져야 한다. 동시에, 일단 부담을 가지면 그 부담에 따라 행해야 한다. 부담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부담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일단 부담을 가졌다면 그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

☞ ☞ ☞ ☞ ☞ **수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전서 2:9-10**

9.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지식과 부담과 기도**

우리가 갖고 있는 부담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부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사실인 한편, 우리의 지식이 초기에는 주로 우리의 부담들을 통제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는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것을 일깨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거나,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 먼 곳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체험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보통의 경우가 아니며,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일을 아주 자주 하시지 않는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시고 멀리 에 있는 누군가에게 가서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다. 평범한 상황 아래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지시하신다. 이것이 왜 우리가 지식이 부담을 초기 단계에서 통치하는 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알게 된 후에 필연적으로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들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이 없고 속에서 솟구치는 것이 없는데도 그들과 관련된 상황과 모든 다른 것들을 알 수 있다. 알고는 있지만, 부담을 갖지는 않았다. 따라서 부담은 궁극적으로 지식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식은 초기 단계에서 우리의 부담을 통치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어떤 문제들에 대한 지식과 기도할 부담을 주시고 그 상황에서 나오도록 도우실지도 모른다. 이런 방법에서, 부담이 온다. 부담은 처음에는 지식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대부분의 부담은 그 시점에 지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담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주지 않으시면서 부담을 시작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예외가 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부담을 주실 수 있다. 그가 아플지도 혹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분명한 부담을 주셨다. 아마도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그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어 그가 실로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예외적인 것이다. 그런 일은 천에 하나정도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담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것이 지식이 곧 부담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 ☞ ☞ ☞ 목요일 20 20 20 20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로마서 8:5, 14, 26

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기도로써 우리 영 안의 하나님의 부담 안으로 털어놓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며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기도해야 할 무거운 부담이 있을 때, 그것을 말로써 표현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입다물고 있어야 할까? 단지 우리의 부담만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짊어 질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할 부담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말로써 털어놓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 만약 우리가 다만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말 몇 마디만 갖고 있다면, 이 말로써 우리 자신을 표현해야만 한다. 부담은 오직 말해내는 것으로 해방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킨다면, 부담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당신 위에서 더욱더 무겁게 될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는 말하는 것은 놀라운 원칙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도 계산에 넣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의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의 말도 관심하신다. 주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막 7:29)고 말씀하셨다. 그 여인이 한 몇 마디가 주께서 역사하시게 하였다. 우리 마음 속으로 어떤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말로하는 요구가 더 효과적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하기를 요구하는 것 같다. 겐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중요한 기도이지만, 「심한 통곡」(히 5:7)으로 하는 기도였다. 그렇다고 큰 목소리로 기도할 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큰 목소리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마음 속에 무거운 부담이 있다면, 내적 부담과 외적 표현 사이에 상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속의 부담이 그리 강하지 않다면, 큰 소리의 기도는 소음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속의 부담이 무겁다면, 들리는 목소리로 말해내야만 한다. 만약 집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없다면, 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큰 소리로 우리 부담을 통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도록 하자. 어떤 때에는 주께서 한적한 장소에 가셨고(막 1:35), 다른 때에는 산에 가셨다(눅 6:12). 우리가 광야나 산에 갈 수 없을지라도,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들리는 목소리로 기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가 들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부담이 충분히 강하다면, 기도할만한 합당한 장소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부담이 명확히 표현되기를 원하신다. 만약 우리가 부담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부담이 해방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만약 자신의 손에 있는 일을 끝내지 않는다면, 더 일을 계속할 수 없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 부담이 해방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부담을 주지 못하신다. 만약 우리 부담을 우리 말

로써 해방한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부담을 주실 수 있다.

그러나 매우 흔히 우리 어려움은 기도할 부담을 자각하고 있을 때 조차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알지 못한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 짓누르는 것이 있는 것을 알지만,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 부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마음의 문제인 한편, 우리 부담이 영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영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때, 우리 영 안에 있는 부담의 성격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영과 마음이 만질 때 모두 분명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그들의 영이 마음을 아직 만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이 부담을 가질 때 그 마음은 부담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영과 마음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만약 어떤 것을 찾고자 원한다면, 그것에 어떻게 가겠는가? 만약 서쪽에 있는데 동으로 간다면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겠는가? 그것을 찾기까지 지구를 한바퀴 돌아야 할 것이다. 그 대상은 일 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찾기까지 지구를 한바퀴 돌아야 한다. 현재 있는 지점을 중심으로하여 원 안을 찾아보고 중심에서 동심원을 그리며 원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점차 크게하여 단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방법에서 모든 사방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영이 마음을 만지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은 방법을 행해야 한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집요하게 한 가지만을 붙잡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만 걸어가는 것과 같으며 찾고자 하는 것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다. 많은 것을 위하여 여러 방향에서 기도하라. 한 가지에 대하여 약간의 몇 문장으로 기도한 후, 그것이 기도하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그것을 내려 놓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라. 기도의 주제를 두번, 세번 혹은 네번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부담을 해방할 것을 만졌다고 느끼기까지 다섯번 혹은 여섯번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일단 이것에 대하여 기도하면, 마음과 영은 서로 연결된다. 그러면 부담을 해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해야 한다. 일단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면, 해방되는 것을 느낄 것이며, 첫번째 부담이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두번째 부담을 받을 준비가 될 것이다.

☞ ☞ ☞ ☞ ☞ **금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 사도행전 1:14下

14. ...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 📖 사도행전 4:24上, 31上

24.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

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

## 📖 사도행전 12:12

12.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 다른 이들과 기도의 사역을 충만케 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도한 부담을 가지므로 인하여 기도 사역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지 못한다. 어떤 부담도 결코 해방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기도하기 위한 하나의 부담을 주시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영과 마음은 연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이 짓눌려서 더이상 부담을 질 수 없을 때까지 부담이 더욱더 무거워지도록 내버려 둔다. 부담에 대한 느낌은 사라지고 그들은 더이상 기도할 수 없다. 오,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써 섬기기 위한 자유로운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심각하게 방해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어떤 일로 우리를 도와주기를 요청했지만 그의 손이 짝 찢다면, 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소용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담들로 인하여 눌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이상 다른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부담을 해방해야 하는 이유이다. 부담을 해방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더 주는데 자유로우실 것이다. 이것이 없이, 주님 앞에서 기도 사역을 충만케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 사역은 자유로운 영을 필요로 한다. 만약 영 안에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두번째 것으로 진행할 수 없다. 만약 부담을 갖고 있으나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신실치 못하고 기도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첫날은 무겁게 느낄 것이며, 둘째날에는 더 무겁게 느낄 것이고 사흘째에도 여전히 더 무겁게 느낄 것이다. 며칠이 더 지난 후, 부담은 점차 멀어질 것이며, 기도하기 위한 힘도 마찬가지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부담을 갖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기도 사역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 기도 사역을 충만케 하기 위한 시간을 들여야만 한다.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둘 이상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주의적으로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배우지 않았다. 다

른 사람들과 기도하는데 있어,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로 들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면, 앞에서 언급한 ‘나선형’ 기도-중심에서 주변쪽으로 향하는 기도-가 효과 있을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담을 해방할 수 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하며 우리 존재를 해방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속적으로 위임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교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협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역사하기 위한 길이 있기 때문이다.

☞ ☞ ☞ ☞ ☞ **토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누가복음 6:12**

12.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기도의 사역을 구하고 세움**

- 1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 2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 3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 4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 5 내가 옛날 곧 이전해를 생각하였사오며
- 6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 **추구 자료** ◆

\* 주: 본문의 인용된 내용은 워치만 니의 소책자인 『부담과 기도(Burden and Prayer)』에 기초한 것이다. 강조를 위하여 굵은 글씨나 밑줄 등이 사용되었다.

## 제 3 부: GTA 권속 교통

### 1. 기도의 부담

1. 오는 주일에 침례를 받고자 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이 된 중국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끌고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분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강하시기를 간구합니다.
2. 주님의 힘을 힘입어 지난 토요일 Gr. 6 학생들의 JAM 집회에 20 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되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3. 청소년들과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름 행사가 청소년들이 주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2. 소식 및 안내

#### 기타 안내

##### a. 주일 메시지 비디오

[www.churchintoronto.org](http://www.churchintoronto.org)에서 주일 집회에서 주어진 메시지의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디오가 게시될 것입니다.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All Halls	Sunday, 10:00 AM	Sheppard Hall	671 Sheppard Ave. E., Toronto,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Sheppard	Saturday, 7:30 PM	Cecil Hall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588
College	Cecil	Friday, 7:30 PM	Gretna Hall	7 Gretna Ave., Toronto, ON M4A 2H5 (416) 757-7117
Grade 6	Gretna	Saturday, 7:00 PM	자매집회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한국어 자매 집회)
Prayer Meeting	Sheppard/Gretna	Tuesday, 7:30 PM	소그룹	매주 화요일 오전 11:00시 (한국어 7점소그룹)
	Cecil	Tuesday, 7:00 PM	소그룹2	매주 수요일 저녁 7:00 (한국어 7점소그룹2)
Web Page	www.churchintoronto.org		Web Page2	www.thechurchintoronto.ca

(이 아침부흥지는 영어 아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및 한글 아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toront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